‘민주신당’ 어제 출범

우리·민주와 합당 여부 최대 관심

대표에 오충일씨 … 원내 제2당 급부상

우리 주자 5명 불참속 孫-鄭 ‘힘겨루기’

범여권 통합정당을 지향하는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이 5일 창당대회를 열고 85석의 원내 제 2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신당은 조만간 범여권 후보 여론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등이 참여하는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범여권도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신당은 이날 오후 시내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의원 등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로 오충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최고위원으로 이미경 조일현 의원, 정균환 전 의원, 김상희 전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양길승 녹색병원장을 선출했다.

민주신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로 정식 등록한다.

민주신당은 우리당 탈당그룹 61명, 김한길그룹 19명, 민주당 탈당그룹 5명 등 모두 85명의 의원이 참여해 한나라당(129석)에 이은 원내 제2당으로 탄생했고 우리당(58석)과 민주당(9석)은 제3, 4당으로 내려 앉았다.

민주신당은 오는 25~30일 여론조사 방식의 대선후보 예비경선(컷오프), 내달 중순 본경선을 거쳐 10월 중순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범여권의 단일후보를 뽑는 ‘통합 리그’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여정은 그리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 열린우리당을 통째로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당 대 당으로 신설합당을 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는 독자생존론으로 완연히 기울었다.

신당 내 반(反) 노무현 진영은 민주당을 먼저 결합시켜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해체로 몰아나갈 공산이 크지만 친노(親盧) 진영은 ‘배제없는 대통합’을 추진하며 우리당과의 합당을 우선 추진할 태세다.

무엇보다 대선후보간 주도권 경쟁은 신당내 파열음을 증폭시킬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8월25~30일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 9월 중순 본경선, 10월 중순 후보 선출로 일정을 잡고 있으나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결합 방식이 선행적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선출구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창당대회에 손 전 지사, 정 전 의장, 천정배 의원만 참석하고 이해찬 전 총리 등 우리당 대선주자 5명이 ‘특정주자 중심의 판짜기 아니냐’며 전원 불참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다 ‘신당 =손학규당’ 논란이 커지면서 손 전 지사, 정 전 의장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공산이 커지는 등 ‘민주신당호’의 항로에는 숱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창당대회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오충일 당대표, 박형규 목사, 천정배 의원, 김상희 최고위원, 김원웅 의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오른쪽부터)이 함께 만세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간 때문에… 잠 못드는 盧

“권한 밖 요구에 사태 장기화” 답답함 토로

휴가 취소한 채 불면의 나날 보내며 노심초사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의 영향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면서 사태 해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도 취소한 채 관저에 머물면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윤병세 안보수석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었다. 노 대통령은 6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노 대통령은 납치 사건 초기 지난달 21일 CNN 방송을 통해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피납자들을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뒤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백 실장이 특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에도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노 대통령은 탈레반 측이 한국 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지도부와 인질의 맞교환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탈레반 측이 한국인 인질 가운데 두 번째로 심성민씨를 살해하자 격노, 직접 탈레반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비서진들이 정부 성명서로 대체하자며 적극 설득,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서 내용 가운데 “다시 우리 국민의 인명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내용은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한국인 인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등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주자들 ‘정통성’ 공방 확산

孫 “광주정신 승화해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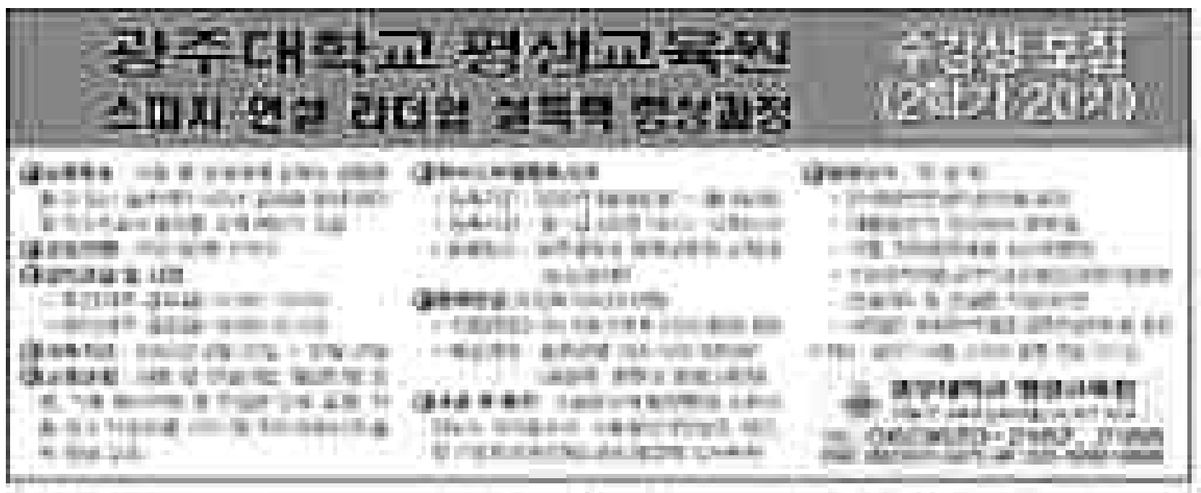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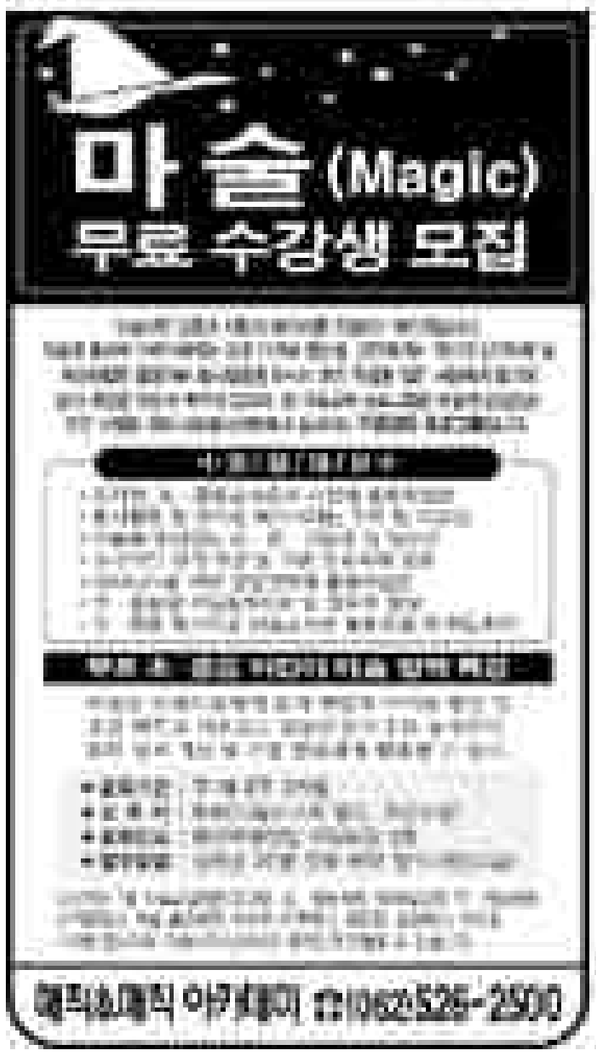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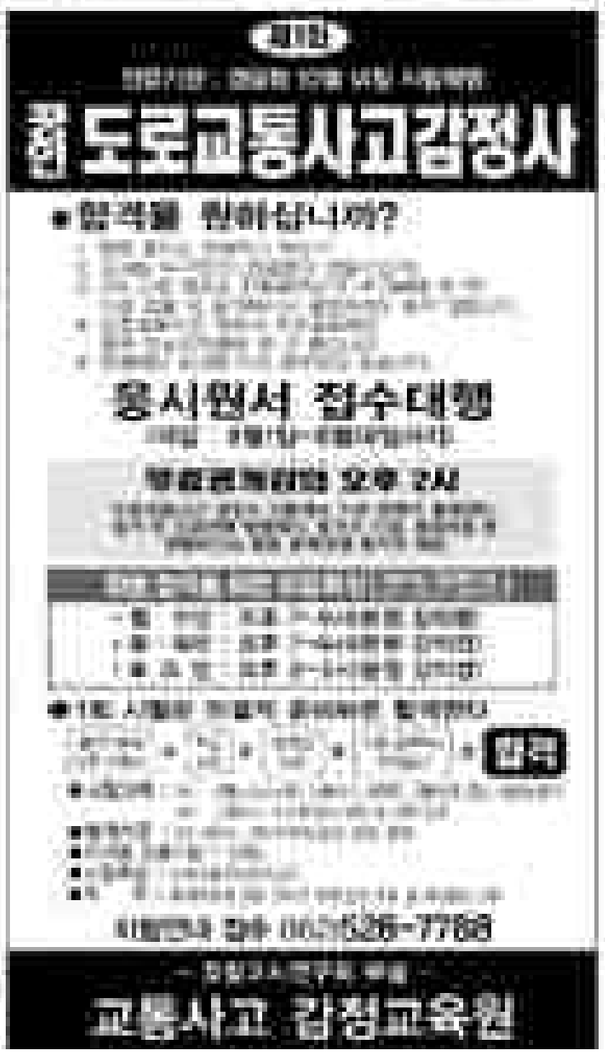
千 “자존심 훼손 후보 필패”

대통합민주신당의 5일 창당대회에서는 대선 예비주자들 사이에 ‘정통성’ 공방이 불거졌다. 과연 누가 범여권의 ‘적자’이냐를 놓고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전 지사와 기존 범여권 주자들 사이에 날선 유세대결이 펼쳐진 것.

특히 ‘5·18 광주정신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손 전 지사의 지난 3일 광주발언을 두고 개혁성향의 후보인 천정배 의원이 “자존심을 훼손하는 후보는 필패”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먼저 손 전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광주정신을 승화해 미래로 나가자고 강조하며 ‘광주발언’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손 전 지사는 “광주정신은 찬란히 빛나는 우리 민주주의 정신과 민족정신의 바탕”이라며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광주영령들께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1980년대를 21세기로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개혁 정통성을 강조해온 천정배 의원이 손 전지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의원은 “한나라당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민생평화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후보는 필패다.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손 전지사를 겨냥하는 모습이었다. 정 전의장은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한 사실을 소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광주가 떠올랐으며 둔감한 우리 정신이 일깨워졌다”며 “정동영의 잘못을 고백한다. 민주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광주를 짓밟은 세력이 발호하고 극성을 부렸다”고 목청을 높였다. /연합뉴스